

# 대학을 통해서 본 중국사회의 작동원리 연구: 시진핑 시대의 인재관을 근간으로

이국봉

본 연구는 거시적 관점에서 시진핑 시대의 중국사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대학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숨겨져 있다. 첫째,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라고도 하지만, 어떻게 대학을 통해서 중국사회가 작동하는 모습을 파악하고, 검증할 수 있는가? 단지 일반적 혹은 비유적 차원에서 흔히 말하는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라는 뜻 외에, 또 다른 중국사회 특색적 면모를 대학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말인가? 만약 그렇다면, 그 요소는 무엇이고, 또 이를 통하여 중국사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혹은 중국사회의 작동에 그 요소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마치 그 사회적 작동에 한 몸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사회를 객관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중국은 14억 인구, 5천년 역사, 56개 민족으로 구성된다. 이 거대한 나라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한가지 힌트를 발견한다. 그것은 고대중국과 1949년 성립된 중화인민공화국을 기준으로 할 때, 전자는 '家'천하, 후자는 '黨'천하라고 부르는 것이 그것이다. 즉, 천하를 통일한 조직과 그 계승의 방법이 과거에는 '家'에 기반했다면, 1949년 이후는 '黨'에 의거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청나라 고대중국의 멸망이 최후 공산당에 의하여 신중국이 탄생했기 때문이다. '당'이 국가를 세운 주체인 셈이다. 따라서 중국의 공산당이 어떤 인적자원으로 구성되고, 그 조직이 중앙과 지방에 어떤 관계로 이뤄지면서 상호 작용을 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거시적 관점에서 곧 중국사회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이해 하는데 핵심이다. 그 내용은 당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당장'(党章)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셋째, 시진핑 시대의 중국사회는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시대와는 어떻게 다른가? 중국에서 흔히 '시대'라는 말을 붙일 때, 시간적으로는 30년 이상, 그리고 그 전 시대와는 다른 근본적 변화가 있을 때에 한하여 시대라는 말을 붙인다. 그것은 단적으로 마오쩌둥, 덩샤오핑, 그리고 시진핑 시대의 당장의 총강 부분을 검토하면 그 강조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가령, 마오쩌둥 시대에 '자아비판'과 같은 도덕적 행동에 대한 행위자의 선한 덕성을 회복하는 주관적 요소에 중점을 둔 반면, 덩샤오핑 시대에는 행위자의 도덕적 의무에 초점을 맞춰 법적 틀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시진핑 시대에는 행위자의 실질적 결과를 도출하는 데에 집중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시진핑의 인재관에는, 인재를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 묶어 보던 데서부터 이제는 곧 '사람'과 '재능'을 어느 정도 분리하여, 그 재능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는 '대학'이라는 실제 현장에서 이 세 가지 문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며, 그것이 또한 하나로 융합되어 있는가, 또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원리로서 '패턴'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에 집중한다. 결국, 그것은 당과 대학의 관계로 귀결되는 문제기도 하다. 세미나는 이런 문제제기와 의식에 역점을 두고 발표한다.

이국봉(LEE, KOOK BONG): 現 상해교통대 국제외공공사무학원 교수 겸 한국연구센터 집행부주임(상무 부원장급)이며, 중국에서 16년차. 서강대와 서울대를 거쳐 칭화대 법학박사 2009년 7월 졸업 이후 이화여대 연구교수 및 서강대 1학기 강의 중, 칭화대 추천으로 상해교통대 교수로 2010년 5월부터 정식 발령받고, 지금까지 중국 언론 주요매체《澎湃》,《文汇报》,《解放日报》,《东方早报》,《新闻晨报》와 한반도 및 동북아 문제, 한국정치 및 정부정책 등 관련 인터뷰 및 특별기사 40편 이상 발표, 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문제 등 《凤凰卫视》TV토론 출연, 중앙일보 중국연구소와 NAVER가 협력한 중국플랫폼《차이나랩》에 2019년부터 "14억 중국의 빅픽처: 중국은 왜 강한가?"라는 주제로 34편을 발표. BBS불교방송 라디오 생방송 출연(4회)을 통해 북미관계와 한반도 문제 인터뷰. 박사논문:《东西文明碰撞与星湖实学的探索》2015년 상해교통대출판사 출판. 또한 한국행정연구원(KIPA) 중국과제 4년연속 공동연구원 참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KWDI) 중국과제 2년연속 객원연구원 참여. 중국 상해시 리더십과학학회 논문 1등상 및 상해시 리더십과학학회 상무이사를 역임.